

밤 낚 시

안상욱

멘토 김성희

등장인물

한 실장	31살. 공 회장의 비서. 양 사모를 사랑한다.
양 사모	27살. 공 회장의 내연녀. 임신 8개월이다.
공 회장	65살. 재벌기업 회장. 씨 없는 수박(?)이다.
경 마담	39살. 룸살롱 마담. 공 회장의 양녀이다.
배 선장	52살. 선장이자 낚시꾼. 살인청부업자이다.
원주민 엄마	40살. 배 선장의 아내. 무인도의 주인이다.
원주민 아들	8살. 배 선장의 아들. 아빠를 기다린다.

시간 어두컴컴한 가을밤.

장소 무인도

무대 SL에는 뱃머리가 있고, SC 뒤쪽에는 검은 샤막이 있다. SR에는 갈대숲으로 위장한 작은 바위섬이 있다.

프롤로그

조명 켜지면 검은 샤막 뒤로 5명의 실루엣이 보인다. 이들의 대화가 변조된 음성으로 들려온다.

- (A) 이번에도 월척 한 번 낚으셔야죠!
- (B) 될 수만 있다면 내 한 몫 두둑하게 챙겨 주겠네.
- (C)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
- (D) 걱정 마. 내가 항상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 (E) 배가 왜 갑자기 고장 난 거지? 게다가 하필이면 귀신이 저주를 내렸단 소문이 있는 섬으로 말야. 웬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잠깐! 지금 뭐가 지나간 거지?

암전. 조명 밝아지면 검은 샤막의 위아래 배경이 밤하늘과 밤바다로 변한다. 원주민 엄마와 아들이 무대 오른쪽 바위섬으로 재빨리 들어가서 몸을 숨기듯이 쪼그려 앉는다.

아들 엄마, 오늘은 절벽까지 뛰어 올라왔어!

엄마, 숨을 헐떡이는 아들의 입을 막는다.

무대 왼쪽 뱃머리가 보이는 바닷가 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아들, 그런 엄마를 이상하게 보며 치맛자락을 움켜잡고 있지만 어느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엄마가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간다.

아들 아빠 왔어?

순간 갈매기 우는 소리에 모자가 엉덩방아를 찢고 엄마는 넘어진 채 아들의 입을 끝까지 막는다.

- 엄마 쉬~! 쉬~! 쉬하라고 ‘쉬~!’ 몰라?
아들 (뒤돌아서 자세를 취하더니) 쉬 안 마려운데...
엄마 쉬~! 질문 좀 그문흐...(바닷가 쪽에 귀를 기울인다)
아들 오줌은 참아도 궁금한 거는 못 참겠는데...
엄마 (한숨) 궁금한 게 몇 개인데?
아들 (양 손가락을 접었다 피기를 반복하더니) 저녁 먹기 전까지는 304개였는데 지금은 305개 됐어.
엄마 참아.
아들 오줌은 참고 있어.
엄마 ... 알겠어. 마지막 추가된 질문 하나만 받을게.
아들 (손가락으로 바닷가 쪽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 여기 왜 온 거야?
엄마 (손으로 망원경을 만든다) 밤낚시, 밤낚시 하러...
아들 밤낚시? 여기서?
엄마 됐지? 이제 질문 끝! 저기 가서 오줌 싸고 와.

이때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아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경기를 일으킨다.

엄마, 아들을 끌어안으며 진정시킨다.

아들 쉬~, 쉬~, 괜찮아.
엄마 엄마... 나 쉬했어.
엄마 하여튼 저 개새끼는 갑자기 짓고 지랄이야!
아들 빨리 바다 가서 바지 빨래해야 되는데...
엄마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말리자. 이따 상황 봐서 불
 피울게.
아들 그냥 저기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빨래도 하고 불
 도 빌리면 안 돼?
엄마 안 돼. 질문 그만하고 그만 자자.
아들 그럼... 왜 가면 안 되는지만 알려주면 바로 잘
 게.
엄마 정말? 진짜지. 너 약속해.

엄마,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린다.

아들, 새끼손가락을 건다.

엄마, 손에서 오줌 냄새가 나는지 바닥에 손을 비비다 주변을 두
리번거리며 서성이더니 뭔가를 주워서 올린다.

엄마 지렁이다!
아들 (자지러지며 뒤로 도망친다) 엄마!!!
엄마 쉬~! 밤낚시를 하려면 이런 살아있는 미끼를 내
 야 돼. 어때?
아들 그냥 톱밥 같은 걸로 하면 되지. 살아있는 걸로
 왜 해?

엄마,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구연동화를 하듯이 얘기한다.

엄마 바보야! 너 같으면 횃집에서 주인이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살아 있는 생선이랑 죽어 있는 생선 있는데 어떤 거 드실래요?” 이러면 “그래요? 그럼 저는 죽어 있는 생선 먹겠습니다. 혹시 부패된 건 없나요?” 이러니? 아무리 생선 대가리라고 해도 재들도 우리랑 똑같아.

아들 나는 날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 그러니깐 엄마가 매일 불 피우느라 열 받아 있는 거야. 하튼 재들도 죽은 미끼는 잘 안 물어. 그걸 무는 애들은 대부분 실수로 걸리는 거야. 게다가 밤이니깐 미끼가 가만히 있으면 생선들이 얼마나 잘 안 보이겠어?

아들, 갑자기 두리번대다 징그러워하면서도 지령이를 집어 든다.

엄마 뭐하는 거야?

아들 나도 낚시하려고. 저 개새끼. 살아 있는 미끼로 잡을 거야.

엄마 개는 달라. 덩치가 커서 혼자서는 못 해. 사람들이랑 같이 잡아야 해. (자리에 앉는다)

아들 ... 왜 사람들이랑 같이 잡아야 해?

엄마 아이 참!(다시 벌떡 일어나며) 진짜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고 쉬~!

아들 (고개를 끄덕이며) 쉬~!

엄마 일단 개가 잘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사람들

이 안 볼 때 그 개새끼를 ‘뽕!’ 차는 거야. 그러면 개가 미친 듯이 짖게 돼 있어. “월! 월! 월! 월!” 그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 “이 개새끼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물어요!” 그럼 같이 잡으면 돼. (할머니 말투로 장난스럽게) “애야, 된장 발라라!”

아들, 엄마의 묘사를 보며 킁킁대다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

엄마 (아들을 막으며) 어디가!

아들 사람들에게 도움 받으려고. 밤낚시 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낮에는 개가 한숨도 안 자니깐 못 잡겠어.

엄마 안 돼! 너 또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그렇지?

이때,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분노가 폭발한다.

엄마 저 개새끼들이 또 짖고 지랄이야!

아들 엄마...

엄마 왜?

아들 쉬~!

암전. 조명 밝아지면 샤막에 임신부의 검은 실루엣이 보인다.

잠시 후,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퐁당!’ 암전.

1장. 은폐

무대 왼편에 뱃머리에서 입에 손전등을 물고 주변을 비추는 정장차림의 남자, 한실장이 등장한다. 바닥에 발을 헛디쳐서 휘청거리다 자세를 다잡는다.

한 실장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 조심하세요. 발밑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공 회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 실장, 공 회장을 부축하는 모습이 어설픈다.

공 회장 고마워, 한 실장. 그런데... 공과 사는 구분하지?

한 실장 ... 죄송합니다. 공 회장님.

공 회장 (한 실장의 등을 두들기며) 한 실장은 언제까지 어설픈 게 없어지려나? 잠깐! (뒤에서 누군가를 끌어당기며) 레이디 퍼스트!

공 회장의 손에 이끌린 양 사모가 등장한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움직임이 무거워 보인다.

한 실장, 양 사모에게 손을 뺀다.

양 사모, 한 실장을 무시하고 지나치다 휘청거린다.

춤추듯이 한 실장에게 안기는 양 사모, 얼른 몸을 뺀다.

양 사모 앞에서 걸리적거리지 좀 마요.

공 회장 그러게 조심하라니깐?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야.

한 실장, 멧쩍은지 가만히 서 있다.

한 실장과 양 사모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돈다.

공 회장 밤낚시라. 오늘 기대되는데? (양 사모의 배를 만지며) 너도 기대 되지?

공 회장, 낄낄대자 양 사모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더니 훔쳐
어를 밀고 퇴장한다.

한 실장, 그런 양 사모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본다.

이때 낚시 장비를 들고 있는 배 선장이 부산스럽게 등장한다.

배 선장 하필이면 배가 고장 나고 지랄이여 니미 씨부럴.
아이고, 깜짝이야! 회장님 수행비서라 했는가?

한 실장 (재킷에서 명함을 꺼내며) 실장입니다, 한 실장.
아까 배에서도 세 번이나 인사드렸는데... 배 선장
님은 얼마 전부터 회장님 밤낚시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배 선장 오늘은 경 마담한테 섭외 받았어. (명함을 힐끔 보
더니 찢어서 날린다)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네.
아니, 저번에 동해에서 참치를 한 번 잡으시더니
그때부터 꼭 같이 다니자고 하시네. 나를 앞으로
아들처럼 생각 하신다나 뭐라나?

한 실장 (배 선장을 훑어보며) ... 아들... 이요?

배 선장 그래서 나 같은 띠 동갑 아들 낳으시려면 참치가
아니라 고래를 빨리 잡으셨어야 됐다고 했지.

배 선장, 낚싯대를 건넌다.

한 실장,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지 바라만 본다.

배 선장, 무색한지 얼른 낚시 장비를 건넌다.

한 실장, 무게가 나가는지 비틀거린다.

배 선장 회장님이 사람을 좀 빠르게 믿으시더라고. 성격이 급하면 낚시 잘 안 맞거든. 조심해서 옮겨. 아까도 보니깐 트위스트 계속 추던데 여가 무슨 밤무대도 아니고. (자리를 뜨려 한다)

한 실장 (힘을 줘서 똑바로 서더니) 근데 아까부터 왜 반말 입니까?

배 선장 나가 시방 존대할 시간이 없어. 빨리 가서 찌 안 보이게 은폐해야 돼. 생선 대가리라고 해도 고기들이 생각보다 은근히 머리가 좋아. (의미심장하게) 어떻게 하면 찌에 안 걸리고 미끼만 먹을까 생각들뿐이라고.

배 선장, 미소를 띠며 자리를 뜬다.

한 실장, 배 선장을 노려보다 한숨을 쉬는데 다리가 풀렸는지 자기도 모르게 비틀거린다.

이때 뱃머리에 모습을 보이는 경 마담이 등장한다. 그녀는 낚시터와는 안 어울리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다.

한 실장, 경 마담을 바라보고 있다.

경 마담 ... 그렇게 예뻐? 알아. 손.

한 실장 손?

경 마담, 손 내민다.

한 실장, 경 마담을 따라 손 내민다.

경 마담, 한 실장의 손을 잡고 뱃머리에서 내린다.

경 마담 야, 이 새까! 왜 손 떨어. 왜 떨어 지랄이야? 내...
내가 무거워?

한 실장 ... 아니, 아니에요! 뭐가 무거워요?

경 마담 그럼... 내가 무서워?

한 실장 ... 아니 뭐, 뭐가 무서워요?

경 마담 너 나 좋아하는 구나?

한 실장 (무시하며) ... 근데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 무인도
맞아요? 사람 사는 흔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 마담 한 실장, 너는 이 섬에 흥흥한 소문 못 들었구나?

한 실장 무슨... 소문?

경 마담 귀신이 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무인도에 이렇게
사람 흔적들이 있겠어? 근데 예전부터 회장님이
사람 없는 곳을 워낙 좋아하시니깐.

배 선장, 씩씩대며 다시 등장한다.

한 실장, 놀라서 몸을 뒤로 빼다가 다시 비틀댄다.

배 선장 이게 귀신이 들었나, 곳 하나? 빨리 안 갖고 오고
뭐해? 회장님 성격 급하셔서 물에 들어가신다고
난리다!

한 실장 (가까스로 다시 자세를 잡는다) 저기, 자꾸 반말하
지 마!

배 선장 뭐여? (손바닥을 위로 올리며) 이 호로 새끼가.

한 실장 ... 요!

경 마담 선장, 선장은 오늘 일 잘 끝내고 돈만 받으면 돼.

배 선장, 경 마담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한 실장의 엉덩이를 꼬집는다.

한 실장, 놀라서 소리치며 낚시 장비를 배 선장에게 던진다.

배 선장, 가볍게 낚시 장비를 받는다.

배 선장 내 처자식이 있어서 참는다. 너 같이 상투도 안 튼 피라미 새끼는 그물에 걸려도 다시마 국물도 안 나와서 바로 방생이야, 알아?

배 선장, 퇴장.

경 마담, 한 실장을 지나치는데,

한 실장 누나 너.

경 마담 (자리에 멈춘다) 그 얘기... 오랜만에 듣는다?

한 실장 잘 들어. 난 오늘 밤, 저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날 거야. 그냥 딱 한번만 눈 감아 주면 안 돼?

경 마담 (한 실장에게 다가오며) 잘 들어. 너랑 저 계집애랑 애 낳고 화목하게 살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게 아니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내 30년 숙원 사업 망치지 마.

한 실장 부모님 죽이고 지 인생 망치게 한 사람한테 복수심을 느끼는 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경 마담 (쓱쓱하게 웃으며 한 실장의 몸을 쓰다듬는다) 대체 저년은 무슨 매력이 있길래 회장님 애첩 된 것도 모자라서 우리 한 실장까지 이렇게 바보 병신으로 만들었을까? 소문대로 밤일을 잘 하나?

한 실장 (살짝 느낌이 오는지 몸을 부르르 떨다 경 마담의 손을 확 뿌리치며) 뱀 같은 혀 놀리지 마. 확 잘라서 회 떠먹어버리기 전에.

경 마담 알지? 재 내 새끼마담 할 때 내가 키스부터 뽕 가게 하는 것까지 실습 시킨 거. 아, 그럼 이것도 알겠네. 저 년이 백 회장 스파이였던 것도 말이야.

한 실장 왜 모르겠어. 누나 너, 옛날에 백 회장네 식구들한테 마약 팔다 걸려서 섬으로 팔려갈 뻔 했는데 아버지가 구해줬잖아. 그게 누구 덕인지는 알아? 다 양 사모님 덕분이야.

경 마담 사모님은 니미... (몸을 부르르 떨다 고개를 돌린다) 근데 저년 뱃속에 있는 애는 진짜 누구 애일까? 만약, 니 아버지 애라면 너는 동생을 아들로 키워야겠네.

한 실장 ... 아버지는 무슨. 피 한 방울도 안 섞였구만.

경 마담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돈은 피보다 진하다. 고아원에서 빼내줘서 지금까지 키워 줬는데 기른 정은 인정해야지. 잠깐, 그러면 너는 새엄마랑 눈이 맞은 폐륜아가 되는 건가?

한 실장 그거 알아? 양 사모님은 최소한 이놈 저놈한테 붙어먹다가 배신 당하지는 않아.

경 마담 ...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생아. 내 충고 하나 해

줄까? 원래 배신은 욕심이 안달 나서 상대방 칼날이 자기 몸통이에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기어 들어가야 당하는 거야. 처음에는 남들이 나를 쏘시는 줄 알지만. (고개 저으며 비웃음) 난 먼저 쏘시면 수셨지 내가 먼저는 절대 안 기어가.

한 실장 정말... 아버지 죽일 거야?

경 마담 (의미심장하게) 너... 밤낚시가 뭔지는 알아?

한 실장 ...?

경 마담 그 멍청한 표정도 오랜만에 보네. 우리 오늘, 잘 해보자.

경 마담, 한 실장에게 진한 키스를 하고는 자리를 뜬다.

한 실장,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는데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바지 뒤춤에서 총을 꺼내 겨눈다.

한 실장 누구야!

한 실장, 주변을 살피는데 아무도 없자 조심스럽게 다시 총을 집어넣는다. 한숨을 뱉으며 한참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이때, 멀리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암전.

2장. 미끼

무대 중앙에서 공 회장을 중심으로 경 마담, 배선장이 낚싯대를 관객석 쪽에 놓고 나란히 앉아있다.

공 회장, 결혼질로 경 마담을 힐끗 힐끗 쳐다본다.

경 마담, 시선을 느꼈는지 옷매무새를 다잡는다.

공 회장 경 마담, 낚시의 첫 번째 철칙이 뭔지 알아?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경 마담, 킥킥덕 웃기 시작한다.

공 회장 허파에 바람 들면 칼로 구멍 내서 빼야 되는데...

경 마담 낚시가 회장님 성격이랑 잘 맞으실 것 같아서요.

둘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공 회장, 헛기침을 한다.

배 선장, 웃음을 참는다.

공 회장 밤낚시는 달라. 대부분 낮에 낚시하는 것처럼 미끼를 깊게 넣는데 밤이 되면 고기들이 위로 올라오지. 그래서 미끼를 얇게 놓아야 잡을 수 있어. 마치 밤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야.

경 마담 (오버스럽게 박수를 치며) 어머! 너무 멋있으시다. 회장님 못 보던 사이에 시인이 되셨네요? 시집 내셔도 되겠어요.

공 회장 그러고 보니 우리 시집 안 간 경 마담 흰자 본지도 오래 됐네.

경 마담 (헛웃음) 사모님은 아이를 낳고 오시나 봐요?

공 회장 잠깐 화장실 간다고 배에 갔는데. 아이가 자꾸 방광을 누른다나봐.

배 선장 아니! 천지 깔린 곳이 화장실인데, 제 배에 허락도 없이...

공 회장, 노려본다.

배 선장, 시선을 느꼈는지 헛기침을 하더니 가래를 뱉는다.

경 마담 양 사모님 없어서 하는 말인데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백 회장님은 얼마 전에 손자 보셨다는데 공 회장님은 아들을 보시잖아요. (낄낄대며) 그런데 아직도 예전처럼 거사 치르시다가 중간에 코골고 주무시지는 않죠?

배 선장, 킥거려다 공 회장과 눈 마주치자 가래를 삼킨다.

공 회장 몽둥이 좀 갖고 와야겠다. 경 마담 오랜만에 한 번 혼내주게.

경 마담 (혼잣말로) 몽둥이는 무슨... 물에 불린 덴뿌라던데...

공 회장 뭐가 어쩌고 어째!

경 마담 어머,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에이, 농담인데 화내시는 거 보면 농담이 아닌가 봐요?

공 회장 (멋쩍게 웃으며) 하하하. 아니! 일본말을 쓰니깐
그렇지! 덴뿌라가 아니라 오덴!

배 선장 회장님... 어묵.

배 선장, 아차 싶다.

공 회장, 호탕하게 웃는다.

배 선장, 따라 웃는다.

이내 웃음이 멈춘다.

이때 중앙에 놓인 공 회장의 낚싯대가 휘어진다. 뭔가 엄청난 것
이 걸린 듯하다.

일동, 관객석에 앉아 있는 한명에게 시선이 쏠린다.

배 선장 낚싯대가 꺾어집니다! 엄청 큰 고기인가 보네요!

공 회장 잠깐... 고기가,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대가리
가 좀 크고, 눈은 짝 찢어지고, 몸통은... (놀라며)
지금 산란기인가? 알을 엄청 많이 뱉네. 꼬리는
또 왜 이렇게 짧아!

배 선장 미끼를 무진장 쳐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공 회장 안 되겠다. 배 선장, 들어가 봐.

배 선장 ... 잘 못 들었습니다.

공 회장 밤이라 잘 안 보여. 들어가 봐.

배 선장, 한숨을 삼키며 윗옷을 벗고 들어갈 준비를 한다.

경 마담 (객석 쪽으로 목을 쪽 빼더니) 저거 고기 맞아요?

경 마담, 비명을 지르며 뒤로 화들짝 넘어진다.

공 회장,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가본다.

공 회장 저거... 사람 같은데? 발가벗은 채로 통통 불었어!

배 선장 피부가 부패되지는 않고 살아 있는 걸 보니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회장님.

공 회장 뭔가?

배 선장 저는 그럼 이제 안 들어가도 되죠?

공 회장, 배 선장을 노려본다.

배 선장, 한숨을 뱉으며 벗던 옷을 마저 벗는다.

이때 혈레벌떡 달려오는 한 실장 등장한다.

한 실장 회장님!

한 실장, 배 선장에게 총을 겨눈다.

배 선장, 양 팔을 하늘 위로 번쩍 든다.

한 실장,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비틀거리자 공 회장과 경 마담에게까지 총구를 겨눈다.

일동, 소리치며 총구를 피한다.

공 회장 저게 미쳤나!

한 실장 저 새끼 조심하세요. 배 선장 배에서... 사람... 팔, 다리...

공 회장 그 가스총은 또 어디서 났어?

한 실장 사람의 잘린 팔, 다리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거... 가스총 아니에요. 사냥용 권총입니다. 제가

낙시랑 사냥의 차이를 잘 몰라서 갖고 왔습니다.

경 마담 잠깐! 한 실장, 그러지 마.

배 선장 마담. 이게 무슨 일이어? 우리 같은 편이람서?

공 회장 ... 같은 ... 편?

경 마담 잠깐만요!

경 마담, 공 회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경 마담 우린 다 같은 편이죠.

한 실장 그럼 배 얼음 창고에 있는 건 뭐야?

경 마담 ... 한 실장,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 혹시 마약이라도 한 거야, 뭐야?

배 선장 아, 아니... 그게... (경 마담에게)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

한 실장 (총을 겨누며) 빨리 말해! 배도 고장 난 거 아니지? 너, 이 새끼 백 회장이 보낸 스파이지! 안 그래도 생선 대가리 같이 생겨서 재수 없었어.

이때 저 멀리서 풍덩하는 소리가 난다.

공 회장 ... 움직였다. 우리도 움직이자.

한 실장, 무슨 영문인지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배 선장, 갑자기 한 실장을 밀치고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

‘탕!’ 한 실장의 총에서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허공을 향하고 있는 총구.

배 선장, 멈춘 채 뒤를 돌아본다.

공 회장, 한 실장에게 다가오더니 손바닥을 내민다.

공 회장 고기들 놀란다. 총 내놔.

한 실장, 고민하더니 공 회장에게 총을 겨눈다.

공 회장 (고개를 젓는다)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나? 물에 사는 것들은 단순해. 먹이를 주면 먹으러 오지. 그런데 물에 사는 것들은 먹이를 주면 먹으러 온 다음에 먹이를 주는 손까지 먹으려고 해.

한 실장 아버지, 요즘 시인 준비하세요? 많이 감상적으로 변하셨네요. 하지만 전 현실적이어서요.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경 마담, 한 실장의 눈치를 본다.

한 실장, 낚싯대에 걸려 있는 뭔가(관객석에 앉아 있는 한 명)를 확인하더니 헛구역질 한다.

배 선장,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 실장과 몸싸움을 벌인다.

공 회장, 바닥에 떨어진 총을 줍는다.

한 실장, 배 선장에게 꿈쩍없이 제압당한다.

공 회장, 한 실장에게 총을 겨눈다.

한 실장, 두 눈을 꼭 감는다.

공 회장 자, 이제 밤낚시 하러 가자!

암전.

3장. 입질

무대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실장.

그 앞에는 그물에 걸려 있는 사람의 팔과 다리 조각이 놓여 있다.

배 선장, 낚시 낚을 한 실장에게 겨누고 있다.

공 회장, 말없이 휠체어를 타고 무대 양쪽을 돌아다닌다.

경 마담, 땅을 보며 눈치를 재고 있다.

한 실장 아까 회장님 낚싯대에 걸려 있던 사람이 팔다리가 없던데... 이거였나 보네요.

공 회장 낚시의 두 번째 철칙. “잡은 고기한테는 절대로 먹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쥐여준다.” 생미끼를 이렇게 던지니 먼저 안 움직일 수가 없지.

배 선장 어떻게... 다 처리할까요?

배 선장, 자세를 고쳐 잡는다.

한 실장, 놀란 눈으로 경 마담을 바라본다.

공 회장, 고개를 끄덕이자 배 선장이 낚시 낚을 치켜 들더니 경 마담에게 겨눈다.

경 마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다.

공 회장 배 선장은 최근에 만난 친구 치고 심부름을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고. 낚시도 잘 하고 솜씨도 좋아서 데려왔는데. 선장은 아마 평생을 살면서 낚싯대로 고기를 잡아 본 적이 없다지?

배 선장, 낚시 낚을 휘두른다. 꽤나 위협적이다.

경 마담, 비명을 지른다.

경 마담 배 선장 이 개새끼...

배 선장 마담은 예쁜 얼굴이랑은 다르게 아가리에서 똥내가 풍기네. 상판을 확 긁어서 어울리게 해줄까나?

공 회장 년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안달법석이었던데... 이년은 어디다 빼돌렸어?

경 마담 무슨 말씀이신지? 이년이라뇨?

공 회장 양양은 어디 갔냐고!

경 마담 저 계속 회장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한 실장 ... 사모님 어디 갔는지는 제가 묻고 싶은데요?

공 회장, 총을 꺼내서 한 실장에게 겨눈다.

공 회장 너희 셋이 한 패야? 안 그래도 양양 이년이 언제 부턴가 나를 피하더라고. 바로 자네를 소개시켜 준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 내가 씨 없는 수박인 걸 모르고 임신해서 좋다 생쇼를 부렸지. 뒤를 캐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왜인 줄 아나?

한 실장,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옆으로 주저앉는다.

한 실장 잠깐만요, 사모님이 저를 만났다고 말했다고요? 회장님...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일단,

경찰에 저 선장 새끼 신고하시고 사모님 찾아서 다시 얘기하시죠. 지금 사모님이 위험해요!

공 회장 내가 그 애를 여태까지 왜 데리고 있었는지 알아? 백 회장한테 그 동안 내 약점들 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중 스파이 짓했다 팽 당해서? 아니면, 나 몰래 내 양아들이랑 붙어먹어서?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말이야. 나를 속인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바닥에서 ‘왜’ 라는 그런 감상적인 따위의 것들은 사라진지 오래 됐으니 말이야.

한 실장, 공 회장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배 선장 저거는 맛이 간 것 같은데 먼저 시마이 칠까요?

공 회장 자네는 나가서 내 낚시 장비나 좀 챙겨주게. 난 선장이 부럽구먼. 좋은 섬에 살아서 말이야. 댁이랑 아들은 잘 크고?

배 선장 다 회장님 덕분이죠. 매년마다 공양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바다신이 도와주나 봅니다. 섬 주변에 철마다 고기들이 들끓으니 말이죠.

공 회장 너희들 선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 그동안 다양한 고기들을 잡으신 유명한 낚시꾼이시지!

배 선장 근디... 사모님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공 회장 어차피 이 섬 안에서 멀리 못 벗어났을 테니깐 금방 찾을 거야. 미끼로 처리할 건가? 아니면 저번

처럼 공양할 건가?

배 선장 뭐니 뭐니 해도 고기들은 사람 생살 미끼를 제일 좋아합니다.

공 회장 그래, 근데 아까 보니깐 뒤처리는 좀 더 깔끔하게 해야겠더라.

배 선장 명심하겠습니다. 원래 미끼만 찾아서 올려다 놓으면 애 엄마가 알아서 그물에 걸어 놓는데 미친 여편네가 이번에는 실수를 했나 봅니다.

공 회장 그럼 자네 가족들 얼굴이라도 좀 보고 오지 그래? 명심도 시킬 겸 말이야.

배 선장 서로 말 안 섞은 지 8년이 넘어갑니다. 그럼 저는 낚시 장비 챙기고 미끼 찾으러 나가보겠습니다.

배 선장, 인사하고 퇴장한다.

공 회장, 갑자기 추억에 잠긴 듯 상념에 젖더니 흐느낀다.

경 마담, 공 회장 앞에 무릎을 꿇는다.

경 마담 회장님! 제가, 제가 죽을죄를 졌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게 하나 있다면... 질투를 느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사모님이, 아니 그 여씨 같은 년이 회장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걸 볼 때마다...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는데...

공 회장 지금은 고해성사 시간이 아니야. 게다가 아까 말했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한 실장 (혼잣말로) 지랄하네... 미친 새끼...

공 회장 (팔뚝으로 눈물을 닦는다) 그 전에 그년이랑 한 실

장이랑 짜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 실장 잠깐만... 그러면 회장님도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면 대체 사모님은... 어디로 간 겁니까?

공 회장 확실한 건 그 아이는 오늘부터 앞으로 귀신이 될 때까지 이 섬에서 살 거란 사실이네. 이제 자네가 대답할 차례야. ... 소문이 사실인가?

한 실장, 정신이 나간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공 회장, 총구를 경 마담에게 겨눈다.

공 회장 그럼 경 마담이 나를 죽이려고 했나?

경 마담 아, 아니요! 그럴리가요! 혹시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마 백 회장 그 새끼가 시켜서 저랑 회장님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공 회장 백 회장? 백 회장은 좀 전에 봤잖아?

한 실장 설마... 물에 툭툭 불은?

공 회장 (고개를 들더니) 해가 뜨는구먼.

공 회장, 씩씩한 미소를 지으며 한 실장에게 다가온다.

한 실장, 눈을 질끈 감는다.

공 회장 내가 나이가 들 줄은 몰랐어. 자네들은 내 나이가 안 될 것 같지? 하긴, 나도 그때는 그랬어. 늙으면 확실하지 않은 길은 전부 다 의심하게 되지. 열길 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 놓고 싶었어.

한 실장 (말이 끝날 때마다 자신의 뺨을 때린다) 제가 배은 망덕한 놈입니다.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 같은 놈입니다. 제발 제게 은혜를 꼭 갚을 수 있게... 살려주세요...

공 회장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똑같은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꼭 고해성사 하면서 뉘우친다. 심지어 내가 신부님도 아닌데.

경 마담 그야 공 회장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라서 그렇죠. 안 그래, 한 실장?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지.

한 실장, 눈치를 본다.

경 마담, 눈치를 준다.

한 실장 제 진정한 아버지 십니다! 낳는 건 누구나 낳습니다. 내갈리면 부모입니까? 한날 육정 때문에 불장난 하다 타버리는 불나방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 하죠. 저를 앞으로 한 실장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공 실장이라 불러주십시오.

공 회장, 그제야 호탕하게 웃는다.

한 실장과 경 마담이 따라서 웃는다.

공 회장 한 실장, 자네 배도 운전할 줄 아는가?

한 실장 ... 네? 배요? ... 배는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옆에서 경 마담이 툭 친다)만은 회장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목숨 받쳐서 해보겠습니다!

공 회장 나는 배를 운전해보는 게 소원이었어. 시동 걸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알다시피 내가 워낙 방향치 아닌가. 자네가 필요한데 나 좀 도와주겠는가?

한 실장 제가 원래 인간 내비게이션입니다!

공 회장 좋아! 밤낮시는 오늘 이쯤에서 끝내고 우리 먼저 뜨지. 선장은 일 끝내고 알아서 올 거야. 아, 그리고 이거 자네에게 돌려주겠네. 우리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 두고 말이야. 난 백 회장한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나 하고 배로 가겠네. 그럼 마무리할 얘기들 나누고 좀 이따 보자고.

공 회장, 한 실장에게 총을 돌려주고는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퇴장한다.

한 실장과 경 마담이 긴장이 풀렸는지 자리에 철푸덕 앉는다. 둘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경 마담 미안해.... 선장이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한 실장 ... 죽었을까?

경 마담 ... 뭐?

한 실장 사모님 말이야. 사실 아까 배에서 그랬거든. 혼자 서라도 공 회장 죽이겠다고... 같이 죽이자고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했어.

경 마담 “잘 들어. 난 오늘 밤, 저 배를 타고 이곳을 꼭 떠날 거야. 그냥 딱 한번만 눈 감아줘.” 라고 말한 거는 뭐야 그럼?

한 실장 (고개를 저으며) 누나 너랑 비슷해. 그냥... 그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싫었어. 아버지랑 같이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그렇게 되니깐 그냥 존재 자체가 싫어지더라고. 결국, 그 애가 그냥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대.

밖에서 ‘퐁당!’ 하고 누군가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경 마담 사실 그 계집애 나한테도 한 번 찾아왔었어.

한 실장 ... 둘이 만났었어?

경 마담 내가 배 선장 섭외하기 직전에 먼저 찾아와서 공회장을 같이 죽이자고 제안하더라. 그때 그 아이가 나한테 할 말이 있었어.

한 실장 ...?

경 마담 나를 뭘 믿고 같이 일을 하자고 했는지를 물어봤지.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원수지간이 됐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 자기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을 믿는데. 난 아직도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한 실장 ... 그래서 그걸 알고 나랑 그 애를 끌어들여서 이 판을 설계한 거야?

경 마담 너는 그냥 미끼지. 생미끼. 같이 가면 회장님의 의

심이 적어지니깐.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둘만 아는 거야. 회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 두고 가자. 뭐해? 회장님 기다리실라. 빨리 가자.

경 마담, 퇴장한다.

한 실장 ... 나는 내가 고기가 아니라 낚시꾼인 줄 알았어.
미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한 실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고 있던 총을 만지작거리다 자리에 두고 퇴장한다.

암전.

4장. 찌

(과거)

조명 밝아지면 무대 왼쪽 뱃머리에서 양 사모가 구토를 하며 뛰어나온다.

한 실장, 헐레벌떡 등장한다.

한 실장 ... 괜찮아?

양 사모 저기, 저기.

한 실장, 양 사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뱃머리에 창고처럼 된 문을 열자 그 안에 그물이 보인다. 그물 사이로 사람의 팔과 다리 조각이 걸려있다.

한 실장, 비명을 지른다.

양 사모 선장도 공 회장이랑 한 패야.

한 실장 그럴 리 없어. 경 마담이 섭외한 사람이라던데.

양 사모 경 마담도 한 패라고! 우리는 이제 끝났어.

한 실장, 배 주변을 살펴본다.

양 사모 뭐해? 뭐하냐고?

한 실장 혹시 열쇠 있나 해서.

양 사모 열쇠가 여기에 왜 있어!

한 실장 배 안은 잠겨 있잖아. 열쇠 찾으면 우리 이 배타고 도망가자.

양 사모 (낄낄댄다)도망?

한 실장 왜 웃어?

양 사모 ... 우리가 저 노인네한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경찰, 검찰, 그리고 국회의원에 심지어 VIP까지 다 저 사람 손에 놀아나고 있는데. 오늘이 기회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저 늙은 개를 잡아야 해.

한 실장 ... 아버지를 어떻게 죽여? 그냥 도망치기로 했잖아. 그리고 죽이는 건 경 마담이 배 선장이랑,

양 사모 아직도 세상을 모르겠어? 살고 싶으면 그 방법 밖에는 없어. 우리 아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양 사모, 갑자기 한 실장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댄다.

양 사모 느껴져?

한 실장, 한참을 머뭇거린다.

양 사모 왜 그래?

한 실장 아니야...

양 사모 그새 마음이 변한 거야?

한 실장 그게 아니라...

양 사모 그럼 뭐야?

한 실장 아니야. 아가가 발로 찼어?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양 사모 설마... 나를 못 믿는 거야?

한 실장 (양 사모의 배에 귀를 갖다 대며) 아가야, 뭐라고?

양 사모 좀 전에 경 마담이랑은 무슨 얘기 했어?

한 실장 ... 그게 아니라,

양 사모 공 회장이 우리 둘 사이를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해?

한 실장 ... 뭐?

양 사모 하여튼 어리숙하기는. 공 회장은 내가 회사 돈 얼마 떴 쳐먹었는지 십원 단위까지 다 알고 있어, 이 등신아. 내가 그동안 임신 했다고 저 변태 새끼 얼마나 피해 다녔는지 알아? 우리 아가 하나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우린 오늘 공 회장 죽이거나 아니면 공 회장한테 죽거나, 둘 중에 하나야!

한 실장 알아, 그런데... 난 못해. 회장님한테, 아니 아버지한테 그렇게는 못 해.

양 사모 ... 다시 말해봐.

한 실장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 봐! 이 배도 그렇고 이 섬도 그렇잖아. 네 말대로라면 우리 아가가 태어나더라도 아버지 발밑에서 평생 동안 짓밟히며 살아갈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아버지랑 살면서 우리 아가를 더 행복하게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양 사모 ... 그래. 알겠어. 그거 알아? 나는 내 목숨 걸고 우리 아가 지킬 거야. 절대 너가 얘기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양 사모, 퇴장하려는데,

한 실장 아니, 그러게 내가 지우라고 했잖아! 나 솔직히 네가 임신할 줄은 몰랐어.

양 사모 ... 다시 한 번 말해봐.

한 실장 그 애가 정말 우리 애는 맞아?

양 사모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그만, 그만 말해.

한 실장 정말 아버지 아이일 수도 있고. 차라리 아버지 아이라면 괜찮지. 백 회장 아이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우는 게 백배 나아!

양 사모, 한 실장에게 다가가서 따귀를 올려붙인다.

한 실장, 다리가 풀렸는지 자리에서 쓰러진다.

양 사모 아가가 말하네. 너는 아빠도 아니래.

양 사모, 자리를 뜬다.

한 실장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한 실장,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계속해서 넘어진다.

암전.

5장. 월척

무대 밝아지면, 낮이 박았다.

아수라장이 된 무대 위.

흠뻑 젖은 배 선장이 양 사모를 부축해오더니 무대 중앙에 내려 놓는다.

배 선장 (두 손을 고깔처럼 모아 입에 갖다 댄다) 뒤처리
똑바로 해!

배 선장, 퇴장한다.

아들, 눈치를 보며 등장하더니 양 사모를 뛰어 넘고 무대 오른
쪽에 있는 움막에 정자세로 누워있는 엄마를 흔든다.

아들 엄마! 엄마!! 죽으면 안 돼!

아들, 팔로 눈물을 훔치며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른다.

엄마,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나 아들을 보며 익살스런 표정을 숨
긴다.

아들 이제 나는 궁금한 거 누구한테 질문해!

엄마, 아들의 말을 듣자 다시 자리에 눕는다.

아들, 인기척 때문에 갑자기 돌아본다.

엄마,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움직임 멈춘다.

아들 뭐야! (엄마에게 안기며) 엄마!

엄마 엄만 안 죽어. 우리 아들을 두고 어떻게 죽어? 죽

은 척 한 거지. 말했지? 생선들도 죽어 있는 미끼
는 잘 안 문다니깐.

아들 진짜네? 사람들 다 갔어. 저 여자만 빼고.

엄마, 양 사모 쪽으로 간다.

아들, 엄마 뒤에 숨어있다.

엄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양 사모의 배에 귀를 갖다 댄다.

엄마 말도 안 돼. (양 사모의 심장에도 번갈아 귀를 댄다)

아들 맞아. 말도 안 돼. 바닷물을 얼마나 먹었으면 배가
저렇게 볼록할까?

엄마 그게 아니라!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 같아. 이것
봐. 움직이잖아.

엄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뒤편으로 달려가 손을 흔든다.

엄마 저기요! 산모가 살아 있어요!

아들, 엄마를 데리고 움막으로 재빨리 끌고 가더니 몸을 숨기듯
이 쪼그려 앉는다. 숨을 헐떡이는 엄마의 입을 손으로 막더니
‘쉬~!’ 소리를 낸다.

아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안 돼.

엄마 왜 그래? 웃긴다. 너 원래부터 여기서 나가고 싶
어 했잖아? 혹시 알아? 너까지 데리고 나갈지?

아들 나도 밤낚시를 할거야. 밤이 되면 살아있는 냄새를
맡고 개새끼가 여기로 올 지도 몰라. 그때 엄마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엄마 여기서 나가면... 개를 잡지 않아도 되잖아?

아들 걱정하지 마. 나는 저 개새끼를 잡기 전까지는 이
곳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니깐.

엄마 걱정된다. (무대 중앙에서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
뜯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원래 난 오줌은 못
참아도 궁금한 건 참는데... 하나 질문해도 돼?

아들 내 남은 304개 질문 다 들어주면.

엄마 ... 좋아!

아들 정말? 약속!

아들,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건다.

엄마 아까 몰사람들이 배타고 떠날 때 뭐라고 하던데...
넌 들었지?

아들 질문이 겨우 그거야?

엄마 ... 너 개새끼 혼자 잡아.

엄마, 자리를 뜨려고 한다.

아들,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붙잡는다.

엄마, 웃으며 돌아서면,

아들 알겠어. 내가 아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똑같
이 보여줄게.

아들, 마치 구연동화 하려는 듯이 자세를 취한다.
암전.

핀 조명이 켜지고 누워있는 양 사모를 비춘다. 그녀의 배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그녀가 살아있음을 암시한다. 그 뒤로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온다.

- (A) 이번에는 왠지 개운합니다.
- (B) 오랜만에 발 뻗고 잠 좀 자겠네.
- (C) 웬일인지 개들이 조용합니다.
- (D) 밤낚시 한 번 잘 했다!

낄낄대는 소리와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흐른다.

- 끝 -